

## 미행 추적

### 주요 등장 인물

**코르누코프 (Kornukov)** -아나톨리 코르누코프 장군, 당시 소콜 공군기지 (사할린 소재) 사령관. 1998년 1월 22일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코르누코프를 러시아의 신임 공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으며 2002년 은퇴할 때까지 이 직위를 역임했다.

**게라시멘코 (Gerasimenko)** - 지휘관 대리, 41 비행 연대

**노보셀레츠키 (Novoseletski)** - 스미르니크 공군 기지 전투기 사단 참모장 대리

**티토브닌 (Titovnin)** -오시포비치 소령의 비행 관제관, 전투기 사단의 전투 통제실 소속

**마이스트렌코 (Maistrenko)** - 작전 당직 장교, 전투기 사단의 전투 통제실

**카멘스키 (Kamenski)** - 극동관구 공군 사령관

보여지는 시간들은 협정 세계 표준시 (UTC) 에 따른 것이다. 1983년 9월 1일 이른 아침, 사할린 영공이었다.

다음은 Rescue 007 (KAL 007 폴리지 않는 의혹들) 이란 책의 152 -155 (한글본 184-187) 페이지를 인용한 것이며, 러시아어 사본은 1993년 ICAO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해설 제공-버트 슬로스 버그

**코르누코프 장군 (군 사령부- 카멘스키 장군에게): (5:47)**

... 공해 상에서라도 그냥 파괴 시켜버리라고? 공해 상에서 그것을 파괴 시키라는 명령인가?

**코르누코프 장군: (6:13)**

차이카 (극동관구 공군 호출 부호)

**티토브닌:**

예, 장군님. 조종사 (수호이15 플래건 요격기 조종사 오시포비치 소령) 가 레이더 스크린으로 [그것] 을 보고 있습니다. 조준했습니다. 지금 조준한 상태입니다. 조준한 상태입니다.



*Kornukov*

**코르누코프:**

대답할 것 없다, 알았다. 발사 준비하라. 목표물은 국경선에서 45-50  
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소련군은 KAL 007기가 소련 영공을 향해 다가오는 동안, 발사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KAL 007기는 그 전에 캄차카 지역 소련 영토 상공을  
비행했던 것이다. .

**코르누코프:**

총 사령관님을 부탁드립니다. 보고할 내용이 있다.

**티토티:**

들립니까?

**코르누코프:**

코르누코프다, 카멘스키 장군님 연결하라...코르누코프 장군이다. 카멘스키  
장군님 연결하라.

**카멘스키 장군:**

카멘스키 장군이다.

**코르누코프: (6:14)**

장군 동지, 코르누코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보고합니다. 목표물  
60-65 ("침입 비행기" KAL 007 호출 부호) 는 현재 국경에서 240.34  
킬로미터 떨어진 테피니 만 (테피니 만은 사할린 섬 동부 해안에 있다. 이 때,  
KAL 007은 캄차카 반도를 완전히 지나고 오후츠크해를 넘어 사할린  
영공으로 들어 가려던 참이었다) 상공에 있으며, 소콜에서 출격 한 전투기가 6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전투기는 조준한 상태입니다. 무기를 장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물은 신호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어두워서  
조종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속 조준하고  
있습니다.

**카멘스키:**

알아내야 해. 민간 비행기인지 어떤지 모르니까 말이야.

**코르누코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캄차카 반도를 넘어왔습니다! 정체도 밝히지  
않은 채 바다에서 [왔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면 공격 하라는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카멘스키:**

그대로 시행하라, 내가 명령...?

같은 시간 중앙 사할린에 위치한 스미르니크(Smyrnykh) 공군 기지에서는...

**노보셀레츠키 (Novoseletski) 중령: (6:12)**

조종사 레이더에 목표물이 보이나?

**티토브닌: (6:13)**

조종사가 스크린으로 봅니다. 스크린으로 봅니다. 현재 조준한 상태입니다.

**노보셀레츠키:**

조준상태!

**티토브닌:**

조준 상태입니다. 이상.

**티토브닌: (6:14)**

들립니까?

**마이스트렌코 (Maistrenko) 중령:**

마이스트렌코다!

**티토브닌:**

마이스트렌코 중령 동지, 여기는 티토브닌.

**마이스트렌코: (6:15)**

뭔가.

**티토브닌:**

사령관께서 국경을 넘어오면 [목표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마이스트렌코:**

...어쩌면 민간 여객[기] 일지도 [모른다].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티토브닌:**

현재 확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종사가 볼 수 없다. 어둡다. 아직도 어둡다.

**마이스트렌코:**

그래, 알았다. 임무는 정당하다. 불빛이 없다면, 여객[기] 일 리가 없다.

*마이스트렌코는 옳지 않았다. 그러나 오시포비치는 그 당시 지상 관제관에게 KAL 007기의 불빛을 보았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 1996년 9월 9일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를 인정하게 된다:*

*"저는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상태로, KAL 007기 바로 옆, 같은 고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자 회견에서 회고했다. 번쩍이는 불빛과 창문의 형태로 그는 민간 여객기의 일종임을 알아 보았다고 그는 말했다. "두 줄의 창문을 보고 보잉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민간 여객기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간 여객기 형태의 비행기를 전투용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요."



*Osipovich in 1983*



*Osipovich in 1996*

**티토브난:**  
임무를 접수했는가?

**마이스트렌코:**  
뭐?

**티토브난:**  
임무를 접수했는가?

**마이스트렌코:**  
접수했다.

**티토브난:**  
이상.

그런데 또 다른 장소에서는...

**코르누코프: (6:21)**  
게라시멘코!

**게라시멘코 (Gerasimenko) 중령:**  
게라시멘코입니다.

**코르누코프:**  
게라시멘코, 지휘소 조용히 좀 지켜, 왜 이리 시끄러워? 전투 임무를 반복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라. 목표물 60-65에 발사하라. 목표물 60-65를 파괴하라.

**게라시멘코:**

알겠습니다.

**코르누코프:**

명령대로 하고 타라소프 연결시켜. 미그 23기의 통제권을 스미르니크에서 넘겨 받아. 호출 부호163, 호출 부호 163말야. 지금 목표물 바로 뒤에 있다. 목표물을 파괴하라!

**게라시멘코:**

임무 접수. 미사일 공격으로 목표물 60-65를 파괴하라. 스미르니크로부터 전투기의 통제권을 이양 받으라.

**코르누코프:**

임무를수행하라. [그것을] 파괴하라!

**게라시멘코:**

...장군 동지...공격 위치로 갔습니다.

**코르누코프: (6:24)**

이런, [옥설], 공격 위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거야], 벌써 공해까지 나가 버렸잖아. 빨리 후기 연소기 가동해. 미그 23도 불러들여. ...네 놈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목표물이 금세 날아가 버릴거야. 게라시멘코!

**게라시멘코:**

여기 있습니다.

**코르누코프:**

그래, 23은 뒤에 따르고, 레이더로 조준을 계속해. 공격 즉시 전투기들은 우측으로 빠지라고 해. 발사했어 안 했어?

**게라시멘코:**

아직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코르누코프:**

이유가 뭐야?

**게라시멘코:**

지금 따라붙고 있습니다. 공격 위치에 들어갔습니다. 163이 양쪽 모두를 주시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코르누코프:**

좋아, 알았어. 이해했어. 163을 오시포비치 뒤에 따라 붙여서 확실히 파괴시키도록 하라.